

길

마음이 통하는
VOL.5



“2013년에도 조합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VOL.5

커버스토리 주요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2년 노동계

- INTERVIEW |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이용후기
- PEOPLE | 서초지부 세일즈지원팀 우차선 조합원
- 현장24시 | 무선집중국센터 액세스망팀 김철훈 조합원
무선네트워크본부 무선망기술지원담당 이우석 조합원
- 길따라밧따라 | 훈훈한 송년회가 뜬다



새 날,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 올 나이를 헤아려 봅니다.
아쉬움과 기대감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그런데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요.
우리는 늘, 오늘보다 어제가 청춘이었고,
오늘보다 어제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그제가 더 대범했죠.

청춘의 열정과 대범함은 곧잘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라고들 하죠.
그것은 모두 어제의 일입니다.
성숙된 오늘이 모여 내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제보다는 어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장 성숙하니까요.

모두가 지나가버린 청춘의 끝자락에서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걸음에 신념을 실으면
역경은 아득히 사라지고 희망이 우리 곁에 바짝 서 있을 것입니다.
새 날,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Contents Vol. 5

04	조합원께 드리는 글	22	전문가 칼럼
06	KTTU 2012 DIARY		- 대한민국은 과로 공화국
08	KTTU News	24	노동계 이슈
14	COVER STORY		- 위기의 노동계, 초심으로 회귀해야 산다
	- 주요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2년 노동계	26	현장24시
18	INTERVIEW		- 무선집중국센터 액세스망팀 김철훈 조합원
	-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이용후기		- 무선네트워크본부 무선망기술지원담당 이우석 조합원
20	PEOPLE	30	길따라밧따라
	- 당당한 워킹맘!		- 훈훈한 송년회가 뜬다
	서초지부 세일즈지원팀 우차선 조합원	34	북멘토 및 독자퀴즈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2년 12월 7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새 희망, 새 각오로 다시 뚝시다!



KT trade union

4
5

조합원 여러분,

심 없이 달려온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계사년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밑 추위가 위세를 떨치고 이른 폭설이 내렸지만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모두는 더 큰 결의와 희망을 품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연시를 보내며 제 마음은 사실 다소 무거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임했던 '2012년 단체교섭'이 애초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염원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비롯, 총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으나, 송구스럽게도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드리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한 진통과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마무리 못한 현안 문제는 저와 집행부가 더욱 공부하고 심기일전하여, 어떤 역경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힘을 갖추어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해 낼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에 선 지금, 일치단결하여 내년에는 더 큰 도약을 만들어 갑시다. 저와 노동조합은 현장 조직 안정화와 고용보장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다시 뚝겠습니다.

2012년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2012 KT노동조합 발자취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을 기조로 출범한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올해 초부터 무급휴일근무근절, 지역단별 프로모션 철폐 등 현장 안정화 활동에 주력했다. 이 밖에 조합일상활동과 함께 전국대의원대회, 위원장 현장순회 강화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렀다.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1년,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첫 해인 2012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정리해본다.

정윤모 위원장 당선과 11대 집행부 출범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기본에 충실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도 맹활약 기대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KT노동조합

2012

현장순회 강화

위원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KT 복지제도가 끝~내주세요~!

복지 강화

복지도 화끈하게! 일도 화끈하게!

노동조합 덕분에입니다. 감사합니다!

KT노사 YOUTH 장학사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장감 넘치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네~

현장중심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무급휴일근무근절 및 지역단별 프로모션 금지!

상조지원제도가 확충돼 편히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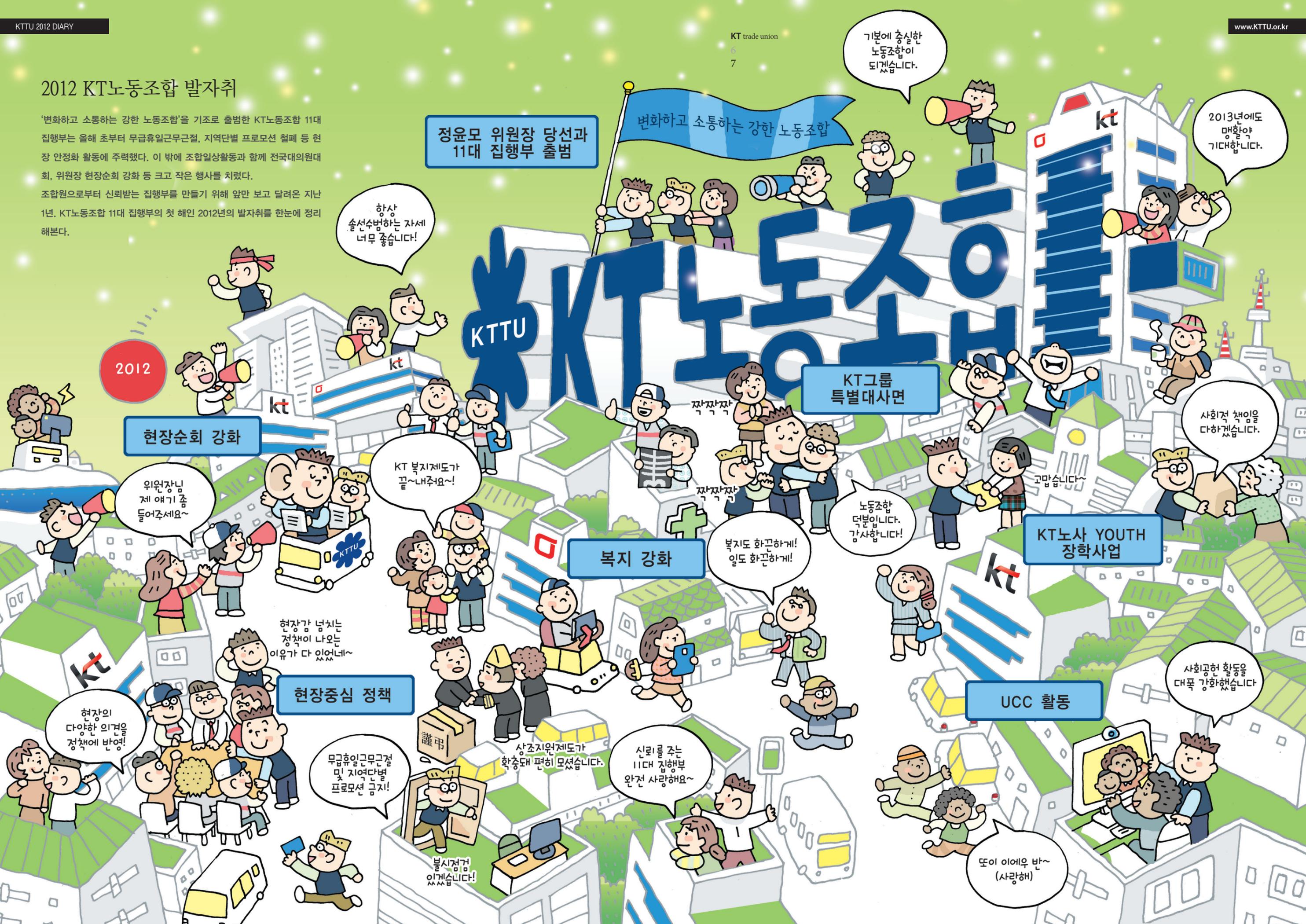
신뢰를 주는 11대 집행부 완전 사랑해요~

UCC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이 이어우 반~ (사랑해)

불시점검 인계합니다!



KTTU News

지방조직 및 행사진행요원 합동수련회 개최 “2013년 더 힘차게 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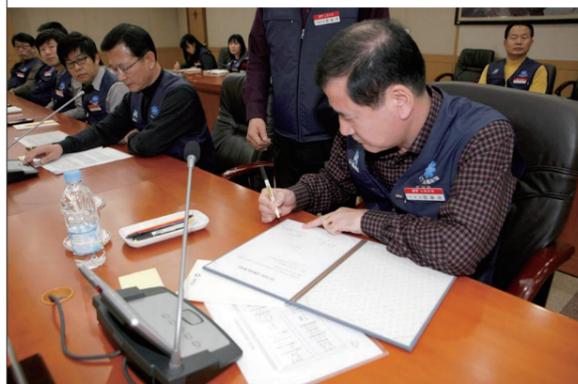
○ 노동조합은 11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2박3일 동안 KT지리산수련관에서 '2012년 지방조직 및 행사진행요원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11대 집행부 출범 후 지난 11개월 동안 현장과 중앙의 실무 가교역할을 한 지방본부 조합간부, 행사진행요원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지방본부별 현황을 공유해 내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첫날 개회사에서 최장복 조직실장은 “올 한 해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한 뒤 “2012년 노동조합은 지방조직을 기반삼아 변화와 소통을 기조로 정신 없이 달려왔으나, 2013년은 더욱 단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합간부의 책임의식을 한 시도 잊지 말고, 조합원들의 기대에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2013년, 힘차게 전진해 보자”고 독려했다.

2012년도 단체교섭 협약 체결 정윤모 위원장 “아쉬움 크지만, 현장 기대 안고 더 큰 도약할 것”



○ 2012년도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노동조합은 11월 23일(금) 조합원총회를 열어 '2012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최종 집계결과 찬성 78%로 가결됐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집행부 취임 후 11개월 동안 걸여온 여정을 돌아보며, 조합원들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역할에 더 많은 변화와 색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특히 임금정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중요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위원장은 “하지만, 앞으로 조합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며, “조합원들의 격려와 기대,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석채 회장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더불어 KT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정윤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 교섭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는 물론, KT조합원과 그룹사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독려했다.

※ 12페이지에서 계속(교섭일지)

KT노동조합, 제1회 유니아프로 동아시아노동조합 포럼 참석 “정보통신·상업·금융노동조합 연대 강화”



○ 노동조합은 10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유니아프로(UNI-APRO) 동아시아노동조합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유니 연맹의 연대를 위한 회의로 일본·한국·대만·홍콩의 정보통신·상업·금융분과 주요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산업적 관계와 조직,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연대와 교류로 힘을 발전시킨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첫날 유니 일본 의장인 키요시 오치아이 의장의 오프닝 인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퍼 응 동아시아지역 유니 사무총장의 '동아시아 글로벌화'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크리스토퍼 응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튿날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최근 상황'을 주제로 연단에 선 KT노동조합 차완규 정책실장은 한국의 전반적 노동운동 상황과 산업별 노동조합의 움직임, 조합원들의 성향을 설명한 뒤, 동영상상 통해 KT노동조합의 30년 역사와 현 집행부의 기조와 노동운동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유니아프로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정위원인 정윤모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의 기조인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의 의미를 전하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심을 유도하며,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소통'이 노동운동의 필수조건이자 화두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아프로는 유니연맹의 동아시아지역 정보통신·상업·금융분과 노동조합위원회로서 동아시아지역 분과별 노동조합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직이다.



KTTU News

업무용차량 사고시 면책금 회사부담 “단,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시 면책금은 운전자 부담”

업무용차량 사고시 면책금 운영지침 개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만 면책금(2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

<시행일>
2012.10.23 부터...



○ 노동조합과 회사는 업무용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운전자 본인과실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면책금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면책금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내용

- 단서조항 개선 : 면책금 지원 전면확대
 - 현재 : 차량운행 중 운전자 본인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
 - 개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 즉, 상기 2개 항목을 제외한 교통 사고는 면책금을 회사가 부담

시행일 : 2012년 10월 23일(화)

※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자료실▶「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근로자 연말정산, 또 달라진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되고 범위확대, 장기펀드 및 한부모 소득공제 등 신설”

신용카드등 공제제도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 변동사례

	'12년	'13년-1	'13년-2
신용카드 사용(대중교통분 제외)	1,8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대중교통비(신용카드로 지급)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직불카드 사용	0원	0원	3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합 계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	142.5만원	187.5만원

(출처 기획재정부)

○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각종 제도변경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율은 5% 축소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요금, 10년 이상 장기펀드 등 공제대상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월 8일(수)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은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신설되는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유리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기존 20%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야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10년이상 장기펀드, 한부모소득공제 등 신설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 펀드상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소득공제율 40%, 실제 혜택 240만원)한도로 세금을 추가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운플랜, 장례식장 제단 한단계 업그레이드 안내



㉞다운플랜은 터무니 없는 장례비용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직접 책임 운영하는 상조회사입니다.

㉞다운플랜은 회원님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례식장의 제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날짜 | 2012년 10월 16일부터
- 지역 | 수도권 지역 1차 실시 후 전국적으로 점차적 확대



변경 전 <변경 전과 변경 후 제단중에서 선택 가능> 변경 후

꼭! 알아 두면 도움 되는 다운플랜 안내

- 현 운영중인 다운1호(300만원) 상품은 인건비 및 물품비 인상으로 신규가입이 2012년 말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 장제용품은 재직사우 400인용, 퇴직사우 300인용이 지급되며,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 ※ 추가 구매는 처음 장제용품 신청시에만 가능(이중배송 불가)
 - ※ 추가 구매 가격 : 200인용(65,000원), 300인용(100,000원)입니다
 - 편리한 조문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평상시 지인관리에 전화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조문문자 요청을 하시면 다운플랜에서 조문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인관리
- www.daonplan.com
- 회원님이 가입하신 다운1호로 웨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웨딩 또는 장례서비스 이용 후 납부한 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서비스 이용 후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약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상이 발생하면 장례 전문 컨설턴트와 가장 먼저 상의해야 저렴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장례식장의 물품(제단, 버스 등)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이 있으며, 이런 장례식장을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장례 전문 컨설턴트와 사전 상담하면, 추가요금이 없는 저렴(제휴로 인한 사용자 감액)하고 청결한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인을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운구시 관내의 경우 엠브런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운플랜 서비스 이용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며, 카드결제(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 약 3% 해당)는 불가 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시 패널티 제도가 있으니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다운플랜 담당(홍정성 T.010-9559-2778)에게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

2012년 단체교섭 일지



1 10월 9일

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9일(화) 2012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열고 노사상권례를 시작으로 3시간 넘는 공방 끝에 조합 6대 요구안을 일괄상정했다.

노동조합 조합 6대 요구

- 임금
 1. 기준연봉 월정액 6.2% 인상(고과인상분 3.2% 제외, 2012년 예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감안)
- 근로조건
 2. 정년연장(58세 → 60세)
 3. 매년 자기계발비 지급(상, 하반기 각 50만원)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923억
 - 1) 단체협약 제90조 관련 829억
 - 2) 별도출연 합쳐서 이행(단체보험 18억, 기념품비 76억)
 5. 자가차량 현실적 보상
- 기타 사항
 6. OTV, OTS 유료컨텐츠 무료 지원

2 10월 11일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1일(목) 오후 3시부터 단체교섭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

- 노동조합

“그 동안 임금은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현장 종사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 경영진이 올해에는 전향적인 자세로 6대 요구를 수용할 것” 촉구.
- 회사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수용불가 피력.

분야	노동조합	회사
임금	기준연봉 월정액 6.2% 인상 (고과인상분 3.2% 제외)	알파계수0.995적용(임금삭감)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58세→60세) • 매년 자기계발비 지급 (상,하반기 각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923억 • 자가차량 현실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복지제도일원화 논의 먼저 선행 • 구체적방안 제시 후 추후 논의
기타	OTV, OTS유료컨텐츠 무료 지원	수용불가

3 10월 25일

2012년도 단체교섭 2차 본회의의 속개. 노동조합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금동결,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원 출연 등을 주장. 결국 양측의 대립과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정회.

- 노동조합

“다음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갈 길을 가겠다”
- 회사

“통신비 인하 등으로 일년에 마이너스 되고 있는 매출 부분이 거의 5천억에 이르므로 회사 입장 양해 바란다”

4 11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차 본회의의 속개. 회사는 이날 진전된 안이라며 ▲기준연봉 월정액 4.0% 인상(고과인상분 포함) ▲정년연장은 정부 법제화 맞춰 논의 ▲매년 자기계발비 대신 그룹 PS제도 도입 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원 출연 ▲복지제도 일원화 및 카페테리아 제도 도입 ▲ 자가차량 운행 현실적 보상은 노사현장실사 후 논의 ▲OTV, OTS 유료컨텐츠 월 8천원 지원 등 미미한 입장을 제시.

노동조합,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 왔지만 회사는 허울뿐인 노사 상생의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 차후 투쟁계획 수립.

5 11월 12일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소집.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과 관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및 투쟁계획 결의.

6 11월 13일~11월 16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힘과 11대 집행부 의지를 보여주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 어렵다” 며 지방본부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투쟁을 독려. 본사, 서초, 광화문 및 각 지부별 출근선전전 돌입.

7 11월 20일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협정 체결. 노동조합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모든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더욱 전진하기 위한 행보이므로 심기일전하여 더 큰 내일을 준비하겠다” 설명.

가합의(안) 주요내용

- 임금분야
 - 가. 임금평균 4.9% 인상 (고과인상분 3.2% + 균등배분 1.7%)
 - 균등배분 1.7%: 1인당 연봉 103만원 정액 인상
 - 1인당 평균 소급액 예상치(11개월분) : 약 260만원(12월 5일 지급 예정)
 - 나. 판매장려금 60만원 지급(2013년 한)
 - 다. 매년 그룹시너지와 연계한 PS(Profit Sharing) 지급
 - 30만원 또는 주식 10주 선택 (2013년 상반기에 지급하되, 주식은 2년 보유)

- 기타 복지 등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829억원 출연
 - 나. 자가차량 이용 영업직원(RM, AM, ITC) 시내출장비 13,000 → 16,000원(3,000원 상향)
 - 다. OTV, OTS 이용요금 지원
 - 기본료(서비스 이용료), 유료컨텐츠 이용료의 월 최대 1만원 지원

8 11월 21일

노동조합 중앙상집, 전국 순회하며 지방상집 및 지부장 대상 설명. “올해 단체교섭은 무수히 현장을 순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준비했고, 소식지와 동영상, SNS 등을 활용해 현장과 소통하며 기대 높였기에 아쉬움이 큼. 그러나 올해 교섭에서 보인 진정성과 현장의 기대를 안고 내년, 내후년 더 멋진 도약 일궈낼 것” 각오 다짐.

9 11월 23일

2012년도 단체교섭 협약 체결.



노조법
재개정 이슈

노조법 재개정 이슈

3



근로 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근로 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5



2013
노동계
keyword

2013년
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

6

시행 1년을
맞이한
복수노조

시행 1년을 맞이한
복수노조

4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7



주요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2년 노동계

2012 임진년(任辰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출발은 노동 현안 문제를 분명하게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지가 여러 곳에서 분출됐고,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공생'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기업별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탓에 노동계 또한 다소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화두를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1. 정리해고와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
2. 노동계의 정치참여
3. 노조법 재개정 이슈
4. 시행 1년을 맞이한 복수노조
5. 근로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편
6. 2013년 최저임금
7.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 정리해고와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
2012년에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였다. 우선 지난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는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11월, 정리해고 당한 생산직 직원 92명은 다시 현장으로 복직 했다. 하지만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다른 사업장의 해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대표적으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이미 많은 희생자와 아픔을 겪은 이들은 단식 투쟁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음에도



정리해고와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

I



노동계의
정치참여

노동계의 정치참여

2

사측의 버티기로 벌써 수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17일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년 이상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계속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계약직 노동자는 2년마다 다시 직장을 찾아야만 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2. 2012 총선과 대선, 노동계의 정치참여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있는 2012년은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많은 해였다. 먼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결과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10명, 통합진보당 3명의 노동계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여야의 분포도로 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4명, 야당이 5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야당에 13명이나 몰려 야당의 노동계 파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선 당시 비정규직 청소년노동자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정당투표 3% 미만으로 낙선해 아쉬움을 보였다.

한편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노동계 표심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선 후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양대 노총 출신 인사들이 각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 속속 합류해 그 어느 해보다 노동계의 정치권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였다.



3. 노조법 재개정 이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 재개정 논의가 노동계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이후 노동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며, 복수노조 시행 이후 소수 노조의 교섭권 박탈 문제와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제도(타임오프제)를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면서 노조활동의 토대가 흔들리고, 창구단일화의 여파로 회사노조로 불리는 사용자 지원노조가 득세하면서 노노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조항을 삭제하고, 국적이 다른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단결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노사관계도 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역시 개정안에서는 폐지했다. 이 밖에 산별교섭을 법률로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법개정 추진 중에 있다.

4. 시행 1년을 맞이한 복수노조

복수노조와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한 2012년. 정부는 산업현장에 복수노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의 설립만이 가능했던 것이 2011년 7월 이후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단일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사측이 자기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이들과 교섭을 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trade union

16
17



5. 근로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올해 노동계의 임금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가 올해부터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사측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요구와 신규인력 채용 압력을 정부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받은 한 해였다. 먼저 현대자동차 노사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서비스, 건설 업종에서도 장시간 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임단협에서 근무시간 단축과 이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대책 없이 무작정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있었다.

6. 201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된 수준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15,740원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2013년 최저임금을 포함했을 때 지난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였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은 거의 미미한 셈이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 양극화 심화와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선거가 몰려있는 올해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는 청년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발표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청년층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 즉 실질실업률은 정부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우선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상시화 되고, 또 신규 구직자보다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력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이 증가해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는 그 부모세대인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신규고용과 정년문제와 함께 맞물려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고용시장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인 정년연장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빈곤심화가 계층 및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은퇴자의 노후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진 한 해였다.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이용 후기



파주지부 문산MASS 고객팀장 장상우 조합원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일산의 한 웨딩홀에서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다. 파주지부 문산MASS 고객팀장 장상우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이었다. 그간 장례서비스만 실시해 오던 다운플랜에서는 웨딩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이번 결혼식을 시작으로 고품격 웨딩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새로운 웨딩문화를 선도해갈 다운플랜의 웨딩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다.

“자식 혼사 앞둔 부모 마음, 다운플랜이 잘 알더군요!”

연신 축하인사를 보내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바쁜 장상우 조합원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다. 애지중지 곱게 키운 딸의 결혼식, 서운함과 기쁨이 배가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일생에 한번 뿐인 이날을 위해 웨딩준비에도 정성을 들였다. 그는 다운플랜에서 웨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접한 이후 혼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됐다고. “이메일을 통해 처음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광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간 애사만 실시했었는데 이제 경사서비스까지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전화 문의를 한 후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운플랜에서는 장례서비스에만 사용하던 다운1호 상품을 지난 4월 16일부터 웨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의상, 메이크업, 본식사진, 웨딩카 등 웨딩에 대한 모든 구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식홀 예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비스는 다운플랜에서 준비해준 것입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죠.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다운플랜에 가입하면 장례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렇게 웨딩서비스까지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다운플랜 웨딩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의 웨딩컨설팅사는 서울 강남구 쪽에서, 각 지방의 웨딩컨설팅사는 토털 웨딩숍을 선정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메이크업과 스튜디오촬영 등을 진행할 때는 같은 수도권역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보면 고객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장상우 조합원은 다운플랜 웨딩서비스의 테이프를 자른 첫 번째 케이스로서 이런 부분을 다소 아쉬워했다.

“다운플랜 웨딩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압구정동에 가서 신부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고양에서 강남까지 거리가 좀 멀더군요. 스튜디오 촬영 때는 서울에서 1박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보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앨범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별도의 추가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DVD나 사진촬영에서 할인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주위에도 다운플랜 웨딩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장상우 조합원은 “KT조합원으로서 경조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운플랜이 있어 든든하다.”며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운플랜이 될 것을 당부했다.



“신랑 신부의 새 출발,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장상우 조합원의 웨딩을 책임진 다운플랜 이재덕 운영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웨딩 작업을 진행해온 베테랑으로서 다운플랜 웨딩서비스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른 웨딩상품과 비교해봤을 때 메이크업, 사진, 의상 등 상품구성이 가격대비 매우 훌륭하다는 점은 다운플랜만의 경쟁력이죠.”

이재덕 팀장은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고 일생에 한번이니만큼 다른 상품과 신중하게 또 많이 비교해 보실 것을 권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운플랜의 상품이 왜 좋은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

“시중에도 좋은 웨딩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비교도 해보시는 것이 당연하죠. 비교하다보면 다운플랜 상품이 왜 좋은지 알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운플랜 웨딩서비스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이재덕 팀장은 지금껏 수많은 웨딩서비스를 진행해온 경험으로 그만큼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무엇보다 뛰어난 임기응변과 가족 같은 편안한 진행은 수많은 신랑신부에게 호평이 자자하다.

“촬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늘 인식하면서 임합니다. 형이나 누나, 동생 등 내 가족이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대하죠. 그래야 신랑 신부님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구요. 어느 누가 망분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감동적인 일, 황당한 일 등 서비스를 진행하다보면 에피소드도 뒤따른다. “촬영하다보면 커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여쭙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커플이 있는데 건강한 신랑님과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신부님이었어요. 신랑님이 봉사활동을 가서 신부님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함께하는 중에 신부님의 착하고 예쁜 마음에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다더군요. ‘아, 이런 사랑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몽클했죠.” 반면에 스튜디오 촬영을 왔다가 다툼이 생겨 신랑은 되돌아간 채 신부혼자 촬영에 임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다고 한다.

이재덕 팀장은 이런 모든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정성어린 최고의 웨딩서비스를 약속했다. “KT조합원들에게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는 웨딩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성심성의껏 정말 예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운플랜을 믿고 맡겨 주세요!”



다운플랜 운영팀장 이재덕

“KT조합원들에게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는 웨딩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성심성의껏 정말 예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운플랜을 믿고 맡겨 주세요!”

가입문의 | 1577-1555
www.daonplan.co.kr

 **다운플랜**



“일하는 엄마들이 바라는 건 모두 같잖아요?”

당당한 워킹맘! 서초지부 세일즈지원팀 우차선 조합원

좋은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1인 3역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명 ‘워킹맘’.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지만 현실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은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슈퍼우먼이기 전에, 남성위주의 배타적인 문화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힘든 사회적 환경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 그녀들은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하면서 행복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쓴다. 우리가 만난 한 명의 워킹맘, 우차선 조합원 또한 그러했다.

지난 8월 한 단체는 19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고통지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 조사에서 워킹맘들이 답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육아와 직장의 병행이었다. 가정경제를 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일은 육아만큼 여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이 됐다. 하지만 아직 육아는 여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 그만큼 워킹맘의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축난다. 그나마 남편이 직장여성인 아내를 격려하고 배려하면 다행이지만, 우차선 조합원처럼 주말부부인 경우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꾸념처럼 내놓는 그녀의 첫마디다. 입사한지 18년 차. 일에서는 프로지만 다소 늦은 결혼으로

하나 뿐인 딸이 이제 여섯 살. 한창 엄마 손을 많이 탈 때라 늘 눈에 밝힌다. 그래도 요즘에는 ‘선택근무제’와 ‘스마트워킹’제도로 마음이 편하단다.

선택근무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중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부서 활동을 감안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해진 의무근무 시간대를 포함, 최대 9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고르면 된다.

“예전에는 시골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유치원 차가 8시 50분에 와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출근을 해야 돼서 힘들었죠. 선택근무제가 도입되고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여유 있게 출근 준비하고 회사 도착하면 9시 40분, 10시부터 일하고 7시에 당당히 퇴근하죠. 저는 사내외 수수료 정산업무 담당이라 일정도 정해져 있고 팀원들도 서로 배려해줘요. 팀장님도 팀원들의 업무 조율에 적극적이세요. 항상 전 달에 미리 전산등록을 해서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선택근무에 들어가요. 아침에 내손으로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도가 생기기 전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우차선 조합원은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출산 당시 미숙아로 태어나 유난히 약했던 딸이 몇 달 후 다시 응급실로 실려 가는 바람에, 3개월의 출산휴가 후 복직을 앞두고서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금도 아이가 아플 때면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심정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사내 제도 덕에 일에 대한 욕심까지 챙길 수 있단다.

“딸이 수두를 앓았을 때, 일은 한창 바빠서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님의 친구 댁에 맡긴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네 번, 집에서 가까운 지부나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제도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죠.”

10명 중 7명이 또래의 워킹맘이라는 우차선 조합원의 팀원들은 서로가 육아 정보도 교환하면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모두 한목소리로 이야기 한다고.

“솔직히 사회에서 직장 여성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그다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의 도움이 정말 커요. 팀원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일어나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낼 수 있고, 아이보다 먼저 출근하면서 ‘너! 학교가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등교하는 것 본 후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안심이 된다.’라고요.”

18년 동안 현장영업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그녀는 고객들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줄 때면 일에 대한 보람도 크다.

“입사 초에 할머니 한분이 손녀처럼 고맙다고 꼬깃꼬깃 접어둔 만원 한 장을 건네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보람도 있고 일도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팀에 비해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다. 조합원들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활용되고 있는 부서는 드물다고. 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팀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워킹맘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일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 모두 같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복지제도와 시설이 있지만 사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자금 제도, 사실 저한테는 무용지물인 제도에요. 대학은 너무 먼 얘기죠.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는 학자금 지원대신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들을 많이 해요.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나와 연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1인 3역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워킹맘, 우차선 조합원. 우리들의 응원과 배려, 지원 또한 세 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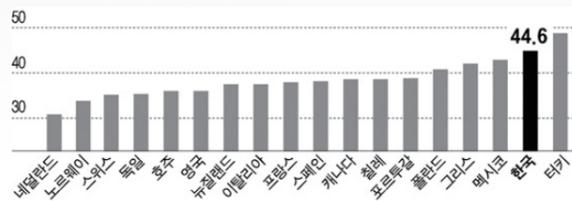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과로 공화국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생산성은 꼴찌. 해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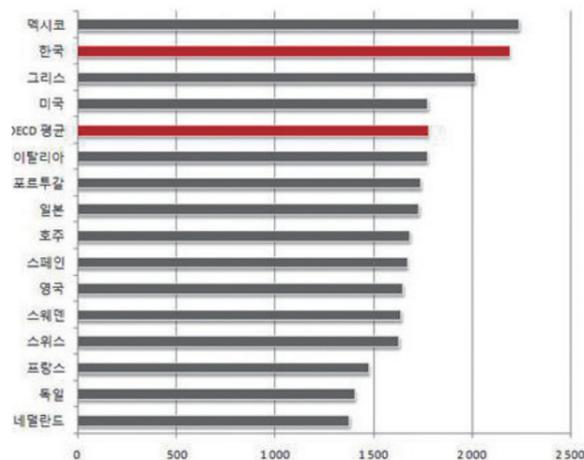
◎ 저녁이 없는 삶

2011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지만 우리는 과거처럼 여전히 오랫동안 많이 일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은 중간 수준이며 노동 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았다.

주요국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OECD년간 평균 노동 시간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완하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우리의 생산물이 미국보다 적다는 얘기가. 일을 오래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다. 더 이상 추가로 노동 시간을 늘려 산출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 장시간 노동의 원인

각 사업장마다 모두 다른 처지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동 형태와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우선은 초과 노동시간에 따른 수당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직종에서 더욱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업무와 관계없이 느슨하게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간편한 방식으로 대처해온 탓도 크다. 수당을 미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것은 우리 기업의 오래된 관행이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상사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회의를 자주 하는 등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이 몰려 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개인과 사회 전체 행복을 저하시키는 초과 근무

장시간 노동의 1차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다. 2008년 연세대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일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위험이 약 3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발암추정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가정 내의 피해도 증가했는데 한 취업포탈의 조사에 따르면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마찰 증가(64.9%), 수면으로 보내는 주말(52.7%), 가족 간 대화 급감(50.5%) 등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조기 퇴직을 유발하고 여성, 청년, 고령자 등과 일자리를 함께 하는 기반을 저해한다. 결국 장시간 노동이 우리 사회 전체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장시간 근로 단속에 적발된 424개 업체는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총 3,179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시간 근로는 산업재해 증가,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연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초과근무에 따른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잔업과 야근수당이 높다면 일부러 근무시간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야근이나 특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으면 사측이 오히려 낮은 비용으로 초과근무를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잔업수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아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잔업수당은 초과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노사가 합의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럽 일부 국가들은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 아니라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초과 노동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당(5.5%)보다 보상휴가(30.8%)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아무리 초과 노동을 많이 해도 대체 휴가를 가야 한다면 총 노동시간은 일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이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로도 최대 3개월 기간에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자진해서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줘 기업과 노동자 둘 다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던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시켜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휴일노동 역시 본질적으로 연장노동인데 이를 따로 구분한 것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나친 노동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사회 전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사회 전체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고 능률이 오르고, 반드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초과근로 단축방안

낮아지는 생산성

시간당 생산성(산출량/근로시간) 감소

- ▶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한계 → 산출량 증가 곤란
- ▶ (대안) 근로시간 감소로 해결 → 초과근로 줄여야

초과근로 단축방안

초과근로 유인 축소

- ▶ 잔업수당 낮춰 직원들의 잦은 야근·특근 유인 감소

근무시간 업무 집중도 제고

- ▶ 근무 중 접담, 차 마시기, 불필요한 회의 등 줄이기

초과근로 시 대체휴가로 보상

- ▶ 수당 대신 휴가 지급, 초과근로 해도 총노동시간 동일

근로시간 규제 강화

- ▶ 초과근로시간 제한 면제 업종(운수업 등) 대상 줄이기

위기의 노동계, 초심으로 회귀해야 산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 내부와 친노동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노동운동의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오래전 이루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구체적 부문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많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가 체제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아본다.

노조 조직률 겨우 10%, 약화되고 열정 잃은 한국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들려온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노동계는 역동성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운동 체제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조조직률이 20%까지 올라갈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노조조직률은 겨우 10%에도 못 미친다.

어쩌다 노동계가 이렇게 쇠퇴하게 됐을까. 1998년 IMF 시절을 거치면서 고용시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 양극화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진행되었고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900만 명에 이르게 됐다. 현실적으로 노조 가입도, 신규 설립도 어려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노동계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노조조직률이 떨어지는 요인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우선 산업구조가 대형 제조업 위주에서 정보기술이나 서비

KT trade union

24
25

스업 등 지식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노조 조직화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들 수 있겠다. 대기업 노조도 투쟁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힘이 있는 대기업 노조가 실리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계 전체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관리에 신경을 쓰고 개인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집단적 성격의 노조 가입을 꺼리는 현상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한국 노동계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거부감을 간과할 수 없다. 양 노총은 한 동안 조합원들의 피부에 닿는 노동운동 보다는 정치투쟁에 몰두해 스스로 노동자들의 신뢰를 깎아먹었다. 성 추문, 이권 개입 등 조직 내부의 부패와 비리도 불신을 키운 한 원인이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 노조는 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을 알선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많은 실망과 냉소를 안겨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민주노조의 동력의 상징이던 했던 민주노총의 탈퇴도 가파르게 이어졌다. KT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노총 안에서 차지하는 상징과 위상이 큰 서울지하철노조마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근본으로 돌아가 노동공동체 실천해야

국민의 관심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부의 합리적 배분 등 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유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대 노총이 변해야 한다. 과거의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계층의 수평적, 주체적 역량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침 하달식의 수직적 노동운동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도 단편적이고 딱딱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80년대의 시대착오 주의적 반목의식을 버리고 정치투쟁의 구조에서 벗어나 공생을 목표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생활중심의 노총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동운동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업 역시 노조를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상생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과의 소통 부족을 간과하다가는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 내몰려 특정 간부들만의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보호의 압력단체의 성격을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추구, 국민 일반의 이익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나아가 국민의 인정과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모순과 문제들, 즉 환경, 고령인구 대책, 계약직 노동력에 대한 보호, 여성 문제, 부정부패와 불합리한 관행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시민 사회운동단체와 유대를 이루어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노동계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당면한 과제와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노조의 국제적 연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다국적기업의 착취와 횡포 근절, 다국적기업과의 국제기본협약 체결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공통된 도전과 행보를 위해 필연적이다.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의 민주화다.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조합원의 권익 증진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조합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부와 조합원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적으로 의사를 경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 문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운동 주체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노사관계 여건은 급격히 변화했으며, 기업 경영 자체가 파격적인 변신을 거듭했다. 기업 측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피할 것이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기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때 구태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노동계가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때다. 그래야 노동계의 달라진 모습,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WARP의 빠름,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요즘 LTE WARP(워프)의 톡톡 튀는 광고가 인기가 있다. ‘빠름~ 빠름~ 빠름~’이라는 경쾌한 리듬처럼 WARP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KT 이동통신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 이러한 WARP를 연구·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두 조합원을 만났다. 그들은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WAR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WARP 만큼이나 빠르게 달리고 있을 것이다.



Awarded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AWARDS 2012 - by Telecoms.com
 - These prestigious awards are a symbol of recognition for quality and innovation. kt is the first Korean company to be selected for Commercial LTE Network



무선집중국센터
엑세스망팀 운용파트
김철훈 조합원

“유선 베테랑에서 WARP 전문가로 변신”

혜화동에 자리한 무선집중국센터에서 만난 김철훈 조합원 역시 WARP 전문가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용어들은 웬만한 무선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유선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1996년 입사한 이후 영업을 제외하고 유선과 관련된 모든 기술직을 섭렵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러던 그가 무선 분야로 넘어온 것은 지난 2011년 초였다.

“유무선 협업 지시로 무선 분야로 넘어왔고, 한 7개월 정도 가입자 VOC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WARP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와 시스템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꽤 애를 먹었어요. 특히 철탑에 올라가기가 무섭더라고요. 하하. 유선 업무를 할 때도 종종 올라가곤 했는데 높이가 7~8m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선 쪽은 건물 옥상에 안테나가 있는 데다 높이도 10m 가까이 되더군요. 외곽으로 나가면 20~30m에 이르는 철탑도 있어요. 작년 초에 처음 올라갔다가 진땀 깨나 흘렸습니다.”

김 조합원은 강북 권역의 LTE WARP 관련 기지국, 중계기 등의 유지·보수를 총괄하고 있다. 그를 포함한 2명의 인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서울은 물론 일산,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을 넘어 저 멀리 철

원까지 이른다. 물론 각 지역마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사들이 있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신설되는 장비들이어서 불량이 적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강북권 내에 10곳의 DU(Digital Unit)집중국과 무인국사를 포함해 총 62곳의 분기국사가 있어요. DU 하나가 다운되어 18개 안테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꽤 넓은 구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4G를 사용하다가 끊기면 3G로 넘어가게 되지만,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가 길어지면 민원을 피할 수 없죠. 관할하는 구역이 넓다보니 하루에 200km를 움직여야 할 때도 있어요. 가입자들의 서비스 사용 시간을 피해 새벽 늦게 일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김 조합원은 기술자로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한다는 것과 장비들의 장애를 해결해 가입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에 즐겁게 일하고 있다. 특히 고속 이동 환경에 특화된 KT만의 기술인 WARP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WARP의 가상화서버가 가능하려면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KT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조합원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요즈

음 또 다른 열의에 차 있다. 유·무선의 업무를 두루 섭렵했지만 다방면의 공부를 통해 자기계발을 계속해나갈 생각인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통신훈의 변화도 급박하잖아요.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다가오는 새해에는 WARP처럼 빠르게 변화의 속도를 앞서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WARP처럼 빠르게 변화의 속도를 앞서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WARP 진화에 보탬이되어 제2, 제3의 WARP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선네트워크본부
무선망기술지원담당
이우석 조합원

“제2, 제3의 워프를 개발해야죠.”

LTE WARP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10년의 일이다. 당시 무선통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기반무선통신(SDR: Software Defined Radio)이 화두였다. SDR이란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우석 조합원이 속한 무선네트워크본부 무선망기술지원팀에서도 SDR을 기술적 화두로 삼았고,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LTE WARP였다.

“저희 팀에서 범용 컴퓨터를 하드웨어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

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일반적인 PC를 이용해서 기지국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죠. LTE는 기지국간 간섭이 일어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러한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WARP의 가상화서버입니다. 144개 기지국을 하나의 가상 기지국처럼 운용해 경계지역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2011년 초에 구체적인 아이디어 콘셉트를 잡고 약 7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런 연구·개발 작업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굉장히 빨랐던 거죠.”

WARP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삼성전자에 제조를 의뢰했지만 처음에는 반

응이 시원치 않았단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판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유명 통신사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홍보를 했고, 제조사 측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렇게 탄생한 WARP 서비스는 현재 유럽, 남미, 인도 등 해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단다. 개발 초기부터 함께 한 이우석 조합원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KT가 없었다면 WARP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명 남짓한 저희 팀에서 WARP와 관련된 특허만 100건 이상 갖고 있을 정도죠. 내년부터 상용화될 LTE 어드밴스에 WARP를 접목시키는 등 앞으로도 WARP의 진화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더 멀리 내



다본다면 제2, 제3의 WARP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기술은 저희 팀이나 KT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선망 연구·개발 분야는 사측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보다 많은 인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합원의 생각이다.

연구와 개발은 결국 창의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선망 전문가들이라 보니 뜻밖의 일에 불러 다닐 때도 많다. 주로 G20과 같이 큰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무선 원격 폭탄을 이용한 테러나 VIP들을 대상으로 한 감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을 해준다.

우리나라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GPS 교란을 막기 위한 방법을 조언해준 적도 있단다.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연구·개발 분야의 인적 투자는 결국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훈훈한 송년회가 뜬다!

흥청망청 송년회는 이제 그만!
착한 송년회로 훈훈한 연말연시 보내기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곳곳에서 시끌벅적한 송년회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폭음으로 이어지는 무리한 송년회 일정으로 연말이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마련.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익한 송년회에서 벗어나, 보다 뜻 깊은 송년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연관람이나 봉사활동 등 연말연시를 더욱 알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송년회 풍경을 들여다보자.



- 티켓링크 | www.ticketlink.co.kr
1588-7890
- 인터파크 | www.interpark.com
1588-1555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 송년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9.5%가 '먹고 마시는 송년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가장 바라는 송년회로 '공연관람 등 문화송년회(58.9%)'를 1위로 뽑았다.

회식에 이어 폭탄주와 음주가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송년회에 지쳤다면 여유롭고 품격 있는 문화 송년회를 계획해 보자. 소극장 공연부터 대형 인기 뮤지컬, 음악 콘서트 등 공연 관람과 함께 하는 송년회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환영받는 송년회다.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기업이 후원 차원에서 공연티켓을 일괄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거나, 가족과 연인을

동반하여 애사심을 높이기도 한다. 연말을 겨냥한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참고하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송년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착한 송년회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라면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보자. 각 구청자원봉사센터에는 수혜자와 봉사자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자원봉사송년회에는 치매 어르신을 찾아 케럴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게임 등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송년파티',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인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는 '연말도심투어', 홀몸 어르신을 위한 '겨울 목도리 뜨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강동구자원봉사센터도 기업들과 함께하는 '봉사 송년회'를 기획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강동구자원봉사센터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야심차게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봉사365'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각 기업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소개해주고 있다. 강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복지시설 청소, 식사 조리 등 노력봉사를 비롯해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주말 여가 활동 함께하기, 홀몸노인을 위한 집수리, 의료봉사, 장애인 동행 나들이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volunteer.seoul.go.kr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 www.seochov.or.kr
Tel. 02-573-9252
- 강동구자원봉사센터 | www.gangdongvc.or.kr
Tel. 02-476-5518

어린 생명을 살리는, 기부 송년회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은 모자뜨기 키트를 구매해 직접 모자를 떠 해외사업장에 보내는 기부 캠페인이다. 매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400만 명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 기초 위생과 의약품 그리고 저체온증을 막기 위한 털모자가 절실하다. 비교적 손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생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한번쯤 시도해 볼 만 하다.

단체로 모자뜨기 키트를 구매해 직접 털모자를 뜬 후 완성된 모자를 세이브더칠드런에 보내면 코트디부아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수혜국가로 전달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참여를 신청하고 모자뜨기 키트를 구매한 후 강습지원을 신청하면 일정에 맞춰 모자뜨기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www.moja.sc.or.kr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 / 1600-3705
- 대한적십자사 블로그
blog.naver.com/blood_info
- 한마음혈액원
www.bloodnet.or.kr / 02-6918-2041

따뜻한 겨울을 위한, 헌혈 송년회

보건복지부가 전개하는 '헌혈 송년회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겨울철은 방학과 낮은 기온 탓으로 혈액공급이 부족한 시기. 헌혈송년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적십자사 고객지원센터 또는 인근혈액원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서단위의 소규모 단체일 경우에는 가까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헌혈의집 방문 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문진, 헌혈예약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헌혈은 전혈(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의 경우 약 10분~15분, 성분헌혈(성분채혈기를 이용해 혈소판 또는 혈장 등의 필요한 성분만을 분리해 채혈)은 최대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다. (혈장 약 30~40분, 혈소판 약 1시간 30분)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와 대한적십자사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글램핑 | goglamping.co.kr
- 핸디로밸리 | handyrovalley.com

도심 속 캠핑 체험, 테마 송년회

특별한 장소에서 색다른 송년회를 기대한다면 다양한 먹을 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한 자리에 마련된 캠핑 테마 레스토랑을 추천한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의 휴식을 즐기고 싶은 건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일 터. 도심 속 캠핑 레스토랑은 캠핑 나온 기분으로 송년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잘 정돈된 텐트에서 각종 캠핑요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각종 인테리어나 부대시설 등도 캠핑장 모습 그대로다. 실내의 공간에 텐트 6동과 타프 4동이 설치 돼 있다. 바비큐를 비롯해 캠핑요리에 필요한 더치 오븐과 캠핑용 그릴도 구비돼 있다. 여기에 운치를 더할 수 있는 맥주, 와인 등의 주류 역시 준비돼 있어 실제 캠핑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끼리, 웰빙 송년회

추운 겨울,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한 해 동안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하지만 온천을 이용하기에는 비용과 거리 등 여러모로 제약이 따른다. 이때 실내 도심온천을 이용해 보자.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심 속 레저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노천온천과 아쿠아테라피, 수중 헬스, 스파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효과적인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탕을 이용할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 유수풀, 파도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친구나 가족 단위로 건강한 송년회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 용산 드래곤힐스파 | www.dragonhillspa.co.kr
- 영등포 씨랄라 | www.sealala.com
- 부천 워터조이 | www.waterjoy.co.kr
-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 www.playdoci.com



- 한영관광개발
http://www.hyttour.kr / 02-738-3393
- 씨앤한강랜드
http://www.hcruise.co.kr / 02-3271-6900

낭만적인 야경과 함께하는, 선상 송년회

강물 위를 유유히 떠가는 유람선 위에서 송년회를 즐길 수 있다. 한강의 눈부신 야경과 함께 여의도와 남산 등 주변의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갑판 위로 나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상쾌함마저 느껴진다.

한강유람선 선상뷔페크루즈에서 즐기는 선상 송년회다. 선상뷔페크루즈는 한강 유람선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다.

씨앤한강랜드에서 운영하는 테마크루즈의 선상 라이브는 매일 밤 라이브 공연과 마술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송년회의 경우 별도의 좌석을 예약해 식사를 즐기며 가벼운 공연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선상뷔페크루즈의 유람선 1층은 50~60명 규모의 단체 송년회 공간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낭만적이고 색다른 송년회를 보내기 위해 사전예약은 필수다.



- 글램핑 | goglamping.co.kr
- 핸디로밸리 | handyrovalley.com

몸과 마음의 정화, 힐링 송년회

요즘 가는 곳마다 힐링이 대세다. 더불어 힐링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과 도서도 인기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은 모두가 바라는 바다. 힐링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휴센터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위해 디자인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명상, 운동, 호흡, 자연건강식, 그리고 숲(자연)이 조화를 이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세심한 자문과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완전한 휴식형, 집중 수행형, 생태·문화형, 단체 맞춤형의 프로그램 유형이 있다. 한밤을 건강학교, 상상템플, 평생건강 자연식캠프, 마인드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기업이나 학교, 기관·단체의 특색과 요구에 맞춘 출장 강의도 가능하다.



2013년 트렌드 키워드는 '코브라 트위스트(COBRA TWIST)'다!

〈트렌드코리아2013〉 김난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3 전망 '트렌드 코리아 2013'. 우리 시대 불안한 청년들의 영원한 멘토 '란도샘' 김난도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뱀의 해, 2013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코브라 트위스트(COBRA TWIST)

를 선정했다. 2013년의 전반적인 전망과 더불어 10대 트렌드 키워드 'COBRA TWIST'에 대해 각 키워드별로 자세히 전망한다. 이 책은 다가올 2013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대비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태도가 확산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기발한 감성과 상상이 만든 난센스에 열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어 북유럽식 자녀 양육법을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아', 누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물질주의자의 무소유', 시즌 개념의

상실, 디톡스 관련 상품 등이 날 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소통과 공감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저자소개

저자 김난도 교수는 저서(총 11권) 1963년 3월 2일 서울 출생. 한국 출판역사상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오른 에세이이자 곧 200만 부 돌파를 앞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란도샘'으로 알려졌고, 첫 에세이를 펴낸 후 강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태국, 대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일본, 베트남 등 세계로 수출되고, 중국 아마존닷컴에서 6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국내 에세이 최초로 출판계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USC)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TTU QUIZ

터무니 없는 장례비용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KT노동조합에서 직접 책임 운영하는 상조회사 명칭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지난호 당첨자

이상도(KT광주지사 특별기동팀), 김건수(기업고객센터 강원기업상담팀), 서성제(KT가라지사 특별기동팀), 김용호(KT연수지사 특별기동팀), 정세희(강남엔지니어링센터 감리팀), 박순목(남대구지사 특별기동팀), 김경배(충북고객본부 사업지원담당), 김중환(KT남대구지사 특별기동팀), 김건우(KT남대구지사 특별기동팀), 이민우(서면지사 CS컨설팅팀), 김영준(무선단말품질검증팀), 이가혜(유선네트워크운용본부 운용품질담당), 강영애(제주고객본부 집중운용부 서비스물관제팀), 임내수(남천안운용팀), 성현주(대구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팀), 민병혁(대구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팀), 이승희(대구네트워크운용단 인터넷망팀), 신병규(대구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팀), 이범호(충남고객본부 smb컨설팅지원부 RCITFT), 김소영(사외채널본부 사외채널기획담당), 이은정(Product본부 로밍사업담당 로밍사업팀)

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대 집행부 변화와 소통의 한해를 마무리 하며

2012년 KT노동조합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1대 집행부가 '변화와 소통의 강한 노동조합'을 기치로, 새롭게 출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1대 집행부는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 추진, 임금·복지 개선, 현장불만 해소, 근무만족도 제고, 행복한 직장 실현, 조합채신 단행 등을 목표로, 열린 노동조합, 찾아가는 노동조합,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조합, 연대하는 노동조합,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열망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KT노동조합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 또한 꾸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곳곳이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T 노동조합

